

“내 평생 이런 산불 처음”...긴급대피 주민들 ‘공포의 밤’

대응 3단계 함평 산불 현장 르포

“내 나이 80 평생 이런 산불은 처음이랑께. 산등성이서 불기둥이 막 솟구치고 불티가 우리 집 마당까지 날아오고 난리도 아녘어.”

핑크빛 뿔뿔이 한창 무르익은 4일 오전 함평군 일대는 그와 대비되는 새까만 잿가루가 산비탈, 도룻가, 집 마당 등 사방에 내려앉아 있었다.

이곳에선 산불로 발생한 매캐한 연기가 사방에 내려앉은데다 탄 냄새가 진동했다. 산등성이에서 는 끊임없이 하얀 연기가 솟아오르고, 곳곳의 나무 사이로 불길기 타오르는 것도 보였다. 불씨가 튀었는지 푸른 밭 한가운데 동그랗게 불탄 흔적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전남-경남소방과 군, 산림청 등의 헬기 11대가 일제히 저수지와 산을 오가며 물을 퍼내리고, 소방차 수십대가 산 주위를 돌며 잔물 때문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을 찾아다녔다. 바람이 강한 탓에 꺼진 불도 다시 피어오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소방당국 설명이 뒤따랐다.

함평군 주민들은 마을회관, 면사무소 등지에 모여 하염없이 산자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들은 언제 불길이 마을을 덮칠지 모른다는 ‘공포의 밤’을 보낸 뒤, 4일 낮부터 타 버린 밭과 선산 등을 둘러 보며 한숨을 쉬었다.

산불을 피해 함평군 신광면 덕천마을마을회관으로 대피한 이영자(80)·김명녀(86)·김옥자(77)·이양순(94) 할머니는 4일 오후까지 충격이 가시지 않은 표정이었다.

김옥자 할머니는 “연기가 확 피어오르면서 하늘이 온통 새까맣게 뒤덮이더라 불씨가 집이고 사람이고 구분 않고 사방으로 날리는 통에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 했다”고 말했다.

“우리 집 마당까지 불티 날아와” 새까맣게 탄 고사리밭 보며 한숨 공장·축사·비닐하우스 등 전소 바람 강해 꺼진 불 다시 피어올라 산림청·소방당국 밤새 산불과 사투

정동선(62) 덕천마을 이장도 “산등성이에서 죽히 10여m는 넘을 듯한 불기둥이 연신 솟아오르는 게 보이는데 공포 그 자체였다”며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밤새 소방관들, 공무원들, 마을 주민들과 함께 호스로 물을 뿌려 가며 불길을 막느라 진땀을 뺐다”고 말했다.

1년 전 덕천마을 산비탈에 집을 짓고 귀농한 신용철(66)씨는 자기 집 뒷마당까지 불길이 덮치는 아찔한 상황에 놓였다. 신씨는 “대피령이 내려지고 2시간쯤 지났을까, 오후 5시쯤 집이 격정돼 가보니 뒷마당 뒷밭까지 불이 불어 있었다”며 “어떻게든 집까지 불이 번지지 않게 하려고 온 가족이 호스를 들고 물을 뿌려다 겨우 막아냈다”고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윤영순(여·71)씨는 불길이 사그라들자 산비탈에 있는 23여㎡(7평) 고사리 밭을 살피러 갔으나, 새까맣게 타 버려 재만 남은 것을 보고 맥이 풀렸다.

윤씨는 “날이 따뜻해져서 슬슬 고사리를 수확할 시기인데, 하나도 남김없이 불타버렸다”며 “그래도 산 근처에 있는 집에는 불이 옮겨붙지 않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 “집까지 불이 옮겨붙을 걱정은 없었다 하길래 잠을 청했는데, 언제 불길이 집을 덮칠지 몰라 자꾸 창 밖을 내다보게 돼 잠을 설쳤다”고 덧붙였다.



함평군 신광면의 북분자주 공장이 4일 산불로 인해 완전히 불타 잿더미로 변해 있다.

/함평=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김송규 신광축산 대표는 병원 입원 중에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 축사가 불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축사 인근 짚단을 쌓아놓은 곳에 불씨가 튀어 축사까지 불이 번지는 상황이었지만, 지인인 이승

구(57) 푸르메한솔농업법인 대표의 도움으로 큰 화를 면했다.

나 대표는 “산불 소식을 듣고 김 대표 축사가 격정돼 찾아가보니, 마침 축사에 불이 옮겨붙으려는 상황이었다”며 “주변에 물을 끌어올 데가 없어 축사

인근에 있던 포크레인으로 흙을 뿌리고 덮었다. 자칫하면 축사 19개 동 전체로 불이 번져 큰 피해를 입을 뻔 했는데 천만다행이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함평=유연재·한수영 기자 yjyou@

보육대체교사들 “부당해고자 즉각 복직” 촉구

광주시청서 82일째 농성 중 지방노동위, 부당해고 일부 인정 노조, 고용 안정 방안 마련도 요구

광주시청에서 82일째 농성중인 보육대체 교사들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일부 인정받았다.

민중노조 민주일반연맹 광공연대노조 사회복지서비스지부는 4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보육대체 교사들을 부당해고한 것이 지노위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키고,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해고된 보육대체 교사가 지노위에 신청한 ‘광주시사회서비스원 및 광주시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판정 결과를 지난 3일 통보받았다.

지노위는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측의 부당해고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광주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사용자이고, 보육대체 교사를 부당해고한 것이 맞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며 “광주시는 채용권이 없는데도



그동안 이 문제에 간섭해왔던 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4일 보육대체 교사 42명이 해고된데 이어 지난달 31일 18명이 또 해고됐다”며 “광주시사회서비스원과 광주시가 지노위의 결정에 답할 차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지노위는

보육대체 교사 등이 광주시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다루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광주시가 다툼의 대상이 아닌 이상, 더 이상 시정에서 농성을 하지 말고 광주시청 로비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고속도로 순찰차 앞 과속하면 ‘딱 걸린다’

순찰차에 단속 장비 설치 확대

앞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순찰차 앞에서 과속운전을 하면 속도 위반으로 단속된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전국 고속도로 순찰차에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청은 그동안 과속 단속은 고정식 단속 장비로 해 왔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됐다며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탐재형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설치해 운영한 결과 전국에서 14만 8028건 속도

위반 운전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또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도 2021년 18명에서 2022년 6명으로 6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1~3월 순찰차 탐재형 단속 장비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 배치해 단속 활동을 시작했다. 단속 차량은 주야간 구분 없이 상시 운영하며, 특히 교통량이 적고 직선 형태라 과속하기 쉬운 구간은 암행순찰차를 배치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및 난폭운전은 탐재형 단속 장비를 통해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며 “고속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금품수수 혐의’ 무안군 간부 공무원 사전영장 기각

무안군 간부 공무원 금품수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무안군청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김홍섭 영장전담 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무안군 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없음, 방어권 보장 등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8억원대 관급자제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

체로부터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무안군청 공무원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김산 무안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B씨의 사전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금품 수수를 대가로 전달된 돈이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김 군수 선거 자금으로 흘러들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개>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대지/임야/전답]					
2022타경 73841	1	회순군 화순읍 도동리 298 789㎡ [수목(복합)]	답	43,806,000	농지취득자격증명 43,806,000원
2022타경 76031	1	광산구 산막동 52-1 4966㎡	임야	158,912,000	연고이상분묘수거 158,912,000원
2022타경 76420	1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171-1 1250㎡	답	76,25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76,250,000원
2022타경 78433	1	남구 화정동 463-4 662㎡	전	208,530,000	지목·전·이전현황 “주거용나지”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22타경 4197	1	나주시 호수로70, 1동 1층107호 39,4725㎡	근린시설	272,000,000	272,000,000원
2022타경 7967	1	나주시 우정로72, 4층 421호 [빛가람동, 더클래스] 210,29㎡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의 하한관리비2022, 11월말 기준약800만원미납된것으로보임]	상가	463,000,000	463,000,000원
2022타경 75281	1	북구 우지로379, 상가동 1층 103호 [상각동, 삼각동혁신타운] 28,59㎡	상가	70,000,000	70,000,000원
[기타]					
2022타경 4616	1	광산구 연산동 1220 845.8㎡ [공정및광업재단차당법제6조에의한기계, 기구목록은별지와달함]	대	2,890,755,920	일괄매각, 목록2공 2,890,755,920원
		광산구 평동산단7면로 72-28 [연산동, 주1동] 1층661.99㎡ 2층661.99㎡ 3층661.99㎡ 제1외 기계기구 스탠박스장치 등 4㎡	근린시설		부상*기타지등*이 나현황*슬레이브 지등*, 공정및광업 재단차당법제6조 기계기구포함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22타경 8267	1	곡성군 옥곡면 무정리 504-1 218㎡ 곡성군 옥곡면 무정리 12-6 단층40.90㎡ 부속건물 단층창고27.70㎡ 제1외 창고 등 26.7㎡ [부속건물목록시멘트기와지붕등창고27.70㎡ 현형철시]	주택	21,348,600 21,348,600	일괄매각, 제1외 건물포함, 목록2공 부상시멘트블록조 *기와지붕*이전현 황*간방지붕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최고가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행히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합할 변경으로 인한 현상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지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결정에 매수보증금의 이반으로 실패하는 경우 그 공유지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결정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표후 우선 매수신고하여야 한다.
2. 매각기일: 2023. 4. 19.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2023. 4. 26. [수] 16:00
4. 매각장소: 광주지방방법원 집행부청
5. 매각방법: 바리엔터 기입참용에 의한투표,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 등 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여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발행의 자기인수 또는 현금

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취득계약을 체결한 문서[일정 보증서]를 준비하여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종료되면 관공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 정하고,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과의 상대적 순위가 정해집니다.
④ 최고가매수신청인과 차순위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 총괄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게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총상 매각결정기일에서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차순위 매각허가신청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결정 영세서, 현상조사보고서 및 결정명세서의 사본 등을 무리없이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알선 후 입찰예부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권을 위해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해당영수증과 함께 등록세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한 신청서를 반환해 제출하면 인정이 위 지를 축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행위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의 주체는 당해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보다 먼저 주권전입신청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등에 대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결정 1주일 전부터 매각결정 영세서, 현상조사보고서 및 결정명세서의 사본 등을 무리없이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알선 후 입찰예부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매각결정기일 전 매수신청서 제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입찰보증금 납부시 매수인은 입찰보증금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민원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 하는 사람은 입찰보증금 반환을 위한 영장을 반드시 발급하고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매각결정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록 의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 소양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④ 공고된 물건은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허가되지 않은 채 취소·정리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및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⑤ 신청을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추후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변형에 비추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⑥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채무자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공로에 관하여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결정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3. 4. 5.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공정배